하늘이 쏟아놓은 災害 「人力으로 克服」안간힘

「豊年의 꿈」잠겨버린 「시름의 들녘」을 가다

水魔지나간 논은 텅비고 저수지·강둑서 볏단 건지기도

民·官·軍나서 벼세우기 총력

배·뗏목타고 "한톨이라도더…"

고사리손도 쉴틈없다 가을장마가 할퀴고간 들녘에는 고사리손도 쉴틈이 없다。「하늘의 심술」을 탓할 겨를도 없이 농촌의 일손은 바쁘기만하다。 <唐津군高大면大村리>

【瑞山·唐津=金東哲기자】「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볼수조차 없는 수재였지만 이제 논에 남은 벼 한톨이라도 건져야지요」

수마가 할퀴고 간 忠南唐津군高大면大村리 배달이들에서 13일 오전 마을주민 20여명과 함께 벼세우기작업을 하던 이동네 면장 兪世濬씨(55)는 울음을 삼키듯 말했다。

총1백70ha의 경작면적 가운데 40여ha의 벼가 유실된 배달이들에는 갑작스런 수마의 흔적을 전해주듯 물이 흥건히 괸 가운데 대부분의 볏단은 떠내려가고 텅빈 논에 일부 남은 볏단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

농민들은 이제서야 구름한점없이 맑게 갠 하늘을 원망할 틈도 없이 모두 논으로 들어가 쓰러진 볏단을 들어 논둑으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했다。

이웃 龍頭里 조지제저수지에서는 주민과 농협직원등 10여명이 수심3m가량의 저수지바닥에 깔린 벼를 갈고리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빈드럼통 4개를 엮어만든 뗏목을 타고 벼를 건져 올리던 이들은 흙탕물에 흠뻑 젖은 볏단이 올라올때마다 이삭부분만 잘라 저수지밖으로 옮겼다。

이번 수해는 瑞山郡에서만도 총경지면적 2만ha중 1천2백ha가 완전침수되고 4백60여ha가 유실됐고 唐津郡에서도 총경지면적 1만8천20ha 가운데 4천8백70ha가 침수되고 3백여ha가 유실되는등 큰피해를 내게했다。

唐津읍採雲리 채운들에서는 13일 상류에서 떠내려오다 둑에 가로막혀 둑부근논에 겹겹이 쌓인 볏단을 공무원 경찰 주민등 1백여명이 나와 끌어올리고 있었다。

瑞山군泰安읍長山리2구 주민 70여명도 13일오전 논이곳저곳에 쓰러져있는 벼를 세우고있었다。1천8백여평의 경작지 절반을 완전유실한 이동네주민 李正雨씨(43)는 「폭우가 쏟아지던 10일새벽3시경 동네에서 소작을 하는 吳龍賢씨(36)가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동네를 돌아다녀 밖으로 나와보니 벼미가 서해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李씨는 「기상대에서 호우주의보만 내렸더라도 볏단을 새끼로 연결해 떠내려보내지는 않았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경작지 54ha중 10ha의 벼를 입은 인평저수지로 떠내려보낸 瑞山군八峰면樣播리 2구 주민들은 모진 풍우와 병충해를 이겨내며 지은 1년농사의 결실을 삼켜버린 저수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었다。

이 동네 주민 6백여명은 10일새벽5시반경 이장이 울리는 비상종소리와 방송을 듣고 논으로 나왔으나 저지대에 있던 논의 볏단은 이미 저수지로 떠내려간 뒤였다는 것。

이곳 농민 金完中씨(44)는 「저수지를 가득 메운채 떠있던 볏단이 아침7시경부터 수십10m가량의 바다으로 가라앉기 시작할때는 사랑하던 자식을 잃는 기분이었단」고 말했다。

삽교호 앞바다에서는 牙山일대에서 바다로 떠내려오는 볏단을 고기잡이배로 건져올리기도 했다。京畿도示灣 華城지구에서도 한톨의 벼를 더 건지기위한 민관군 합동복구작업이 13일낮 펼쳐지기도 했다。

또 12일 하루종일 폭우가 쏟아진 京畿도高陽군과 金浦군일대에서도 학생 공무원 농협직원등이 나와 물이 아직 빠지지 않은 논에서 벼세우기 작업을 벌였다。

농민들은 대풍의 꿈이 1백70여㎜의 폭우로 흉년으로 바뀌었다면서 천재지변이라 하지만 일기예보의 정확성과 철저한 하천정비등이 있었으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많은벼를 건져내기는 했으나 물에잠겼던 벼에서 싹이 돋아나 농민들의 걱정은 더욱 심각하다。

瑞山군音岩면道堂리 宋大旭씨(45)는 「물에 잠겼던 벼에서 하얀 싹이 돋아나 30%가량은 감수가 예상된다」며 「더이상 비가 오면 올농사는 완전 포기해야 할판」이라고 한탄했다。

농민들은 추곡수매때 정부에서 물에 빠졌다 건져낸 벼를 수매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농민들은 또 영농자금상환기간연장및 이자감면 학생들의 납부금면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자금지원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兄弟 재산다툼하다 放火

연립주택 10채태워

서울文來洞 41가구 百77명 집잃어

13일저녁 7시55분경 서울永登浦구文來동6가24 梁옥진씨(59·여)집 안방에서 불이나 梁씨집과 부근 연립주택 10채를 태워 41가구 1백77명의 주민이 집을 잃고 부근 文來洞성결교회에 수용됐다。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2천5백만원 정도。

불은 梁씨집 안방에서 梁씨의 아들 吳殷鉉씨(31·용접공)가 동생 澤鉉씨(28)와 가옥등기문제등으로 다투다 술에취한 殷鉉씨가 방문창호지에 성냥불을 붙여 일어났다。

梨泰院 가두시위 大學生 5명拘束

6명은 拘留처분

IBRD IMF총회기간중 서울龍山구梨泰院동 국제상가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다연행된 23명의 학생중 5명이 구속되고 6명이 즉심에 넘겨져 구류처분을 받았다。

서울지검공안부는 14일 이사건이 국제대회기간중 외국인을 상대로 국위실추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을 중시,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까지도 모두 구속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街頭시위 주도한 弘大生4명 구속

서울노량진경찰서는 14일 홍익대민민투위원장安熙泰군(22·경제4)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1일오후 6시경 서울永登浦구新吉2동 동사무소앞길에서 홍대생 50여명과 함께 「외채정권타도」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다。

祥明女大 1명도

서울서대문경찰서는 14일 교내시위를 주도한 상명여대생 金再順양(22·역사교육학과4년휴학)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美文化院사건관련 延大生 3명제적

연세대는 14일 미문화원농성관련학생 4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朴重夏(22·영문학과4년휴학)梁東珠(21·신방과4년휴학)崔永君군(22·경영학과3년휴학)등 3명을 제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田辰淑양(21·사회사업학과3년)에게는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産災진료비 횡령 勞動部직원 拘束

서울지검동부지청은 14일 산재보험지정요양병원에 지급될 진료비 4천여만원을 횡령한 노동부서울동부지방사무소보상과 요양계장 李成漢씨(45)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산재보험요양및 진료비지출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1월 노동부측이 江南구論峴동199의4 朴제관외원에 지급해야될 진료비 1천2백여만원을 횡령하는등 지난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천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白鐵씨 별세

〈藝術院회원 文學평론가〉

예술원회원 문인 평론가 白鐵씨(사진)가 13일낮1시25분 서울銅雀구黑石동38의25 자택에서 별세했다。향년77세。〈6면에 관련기사〉

유족으로는 미망인 崔貞淑여사(63)와 4남3녀가 있다。장례는 15일오전10시 서울鍾路구東崇동 문예진흥원 앞뜰에서 문인장으로 치러진다。장지는 忠南禮山군德山면梁上리 선영。연락처 [illegible]

휴지통

▼…일본인관광객 「키지마 메기오」(鬼島翰夫·35)씨는 13일밤10시경 숙소인 서울龍山구漢南동 하얏트호텔1002호실에서 장난감권총두자루를 갖고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호텔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키지마」씨는 이날 38구경 「리볼버」장난감권총2정을 잠바안주머니와 바지주머니에 각각 넣고있다가 호주머니가 불룩한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몸수색 결과 권총이 발견돼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IBRD IMF행사관계로 경비를 위해 호텔에 나와있던 경찰은 권총이 장난감으로 밝혀지자 「회의가 진행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큰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비밀映像104분!!
自由想像 絶對 不許!!
原作 黃晳暎
監督 申承秀
곧同時開封
동아극장 코리아극장
552-6111~7

아파트지역 駐車難 극심

車못세워 아우성…綠地까지 "滿員"

서울시내의 극심한 주차난현상이 이제는 江南과 汝矣島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파트주민들의 승용차소유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강화된 주차장법 시행(79년 시행)이전에 건축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기존아파트단지에서는 포화상태가 되고있는 자동차의 주차공간확보를위해 단지내의 녹지공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아파트촌의 삭막함을 더해주고 있다。또한 도시의 부족한 택지난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이때부터는 아파트의 건폐율을 기존 18%에서 25%로, 또 용적률과 거리도 건물높이의 1.25배를 유지하도록 돼있는 것을 1배로 완화해 실시함으로써 녹지및 주차공간은 줄어들고 건물 면적만 더 넓혀주는 결과가 되고있다。

현재 주차장부족현상이 심각한 아파트는 고급아파트촌으로 알려진 江南의 현대 한양 우성 쌍용 미도 선경 은마아파트와 汝矣島지역의 아파트들이다。

狎鷗亭洞 현대아파트 109동의 경우 주민들의 승용차는 80여대가 있으나 아파트앞 주차장에 그어진 주차선은 31대분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차는 양쪽으로 갈라져 주차된 차들의 앞을 가로막은채 세워놓고있으나 그래도 15대 가량의 차는 세울데가 없어 보도블록위에나 아파트모서리에 주차시키는 형편。

이 아파트경비원 차모씨(35)는 「아침마다 주차선밖의 차를 밀어내는 일이 일과의 시작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한가구에 2대씩의 승용차도 갖고있는 이들아파트에서는 주차공간확보시비가 자주 벌어지며 아침마다 출근을위해 차를 끌어내거나 돌리는 공간이 부족해 큰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다。

같은 동네 한양아파트 42동의 경우 차를 갖고있는 52가구중 30여대는 주차선안에 주차하고 나머지는 주차선밖 빈터나 보도블록등에 주차시키고 있다는 것。

은마아파트 15동의 경우도 4년전에는 주민들의 승용차가 20여대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70여대로 늘어나 아파트앞 주차선에는 40대밖에 세울수없어 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은 빈터를 찾아 아파트 주위를 빙빙돌고 있다는 것이다。

學園사태등 관련 大學生 81명手배

서울시경은 14일 학원사태등과 관련한 각종사태수배자 81명(기존수배자포함)의 명단을 산하23개경찰서에 내려보내 이들을 빨리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시경은 이지시에서 수배자들이 장기간 숨어있으면서 IBRD IMF총회기간중에도 각종시위를 배후조정하거나 반정부유인물을 제작했다고 지적, IBRD IMF총회경비에 집중됐던 전경찰력을 수배자들의 검거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사태별로본 수배자수는 △학내외사태관련=연세대생 韓창민군(22·철학과4년)등 45명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관련=서울대 朴勝鉉군(26·치의예과 1년휴학)등 17명 △서울대민주화추진위원회배후관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집행국장 李範泳씨(30)등 8명 △각종유인물제작관련=민통련부의장 韓敬南씨(39)등 8명 △삼민투관련=전학련의장 吳秀鋼군(22·성균관대 총학생회장·행정4)등 3명이다。

競馬중 騎手사망

코스이탈한 말이 철책에 걸려 落馬

13일오전11시반경 서울뚝섬경마장에서 열린 1천m경마도중 6번경마「비술산」이 결승점15m앞에서 갑자기 코스를 벗어나 옆에 있는 철책을 뛰어넘어 나뒹그러지는 바람에 타고있던 기수徐大源씨(24)가 땅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이날 사고는 시속 60㎞로 다툼을 벌이던 「비술산」이 결승점을 앞두고 오른쪽에 처진 높이1m가량의 철책을 뛰어넘으려다 뒷발이 철책에 걸려 쓰러지며 일어났다。

말이 넘어지자 徐씨는 앞으로 퉁겨나가며 결승점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친뒤 넘어지는 「비술산」에 깔렸다。

사고를 낸 말은 지난4월22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돼 이날 두번째로 경마에 출전했는데 경찰은 이말이 경험부족으로 레이스도중 흥분해 코스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學園침투간첩단 첫公判

학원침투 유학생 간첩단사건 첫공판이 14일오전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합의10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梁東華피고인(27·조선대제적)등 15명에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있었다。

梁피고인등은 『미국유학중 북괴에 들어가 로동당에 입당한뒤 귀국, 학원소요를 획책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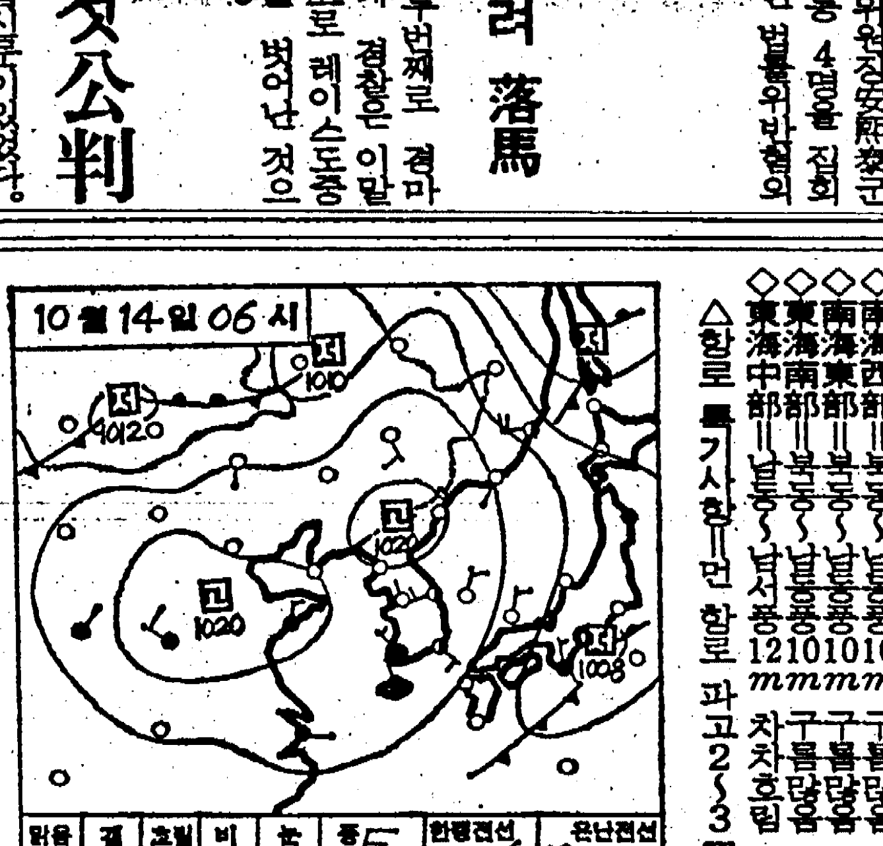
날씨

<15일>

中部 개고 南部 구름

◆서울·京畿=남풍~남서풍 흐린후갬
◆白翎島=남풍~남서풍 한차례비
◆忠淸=남풍~남서풍 흐린후갬
◆江原=남풍~남서풍 흐린후갬
◆全羅=북풍~남동풍 구름많음
◆濟州=북풍~남동풍 구름많음
◆慶尙=북풍~남동풍 구름많음
◆鬱陵島=남풍~남서풍 차차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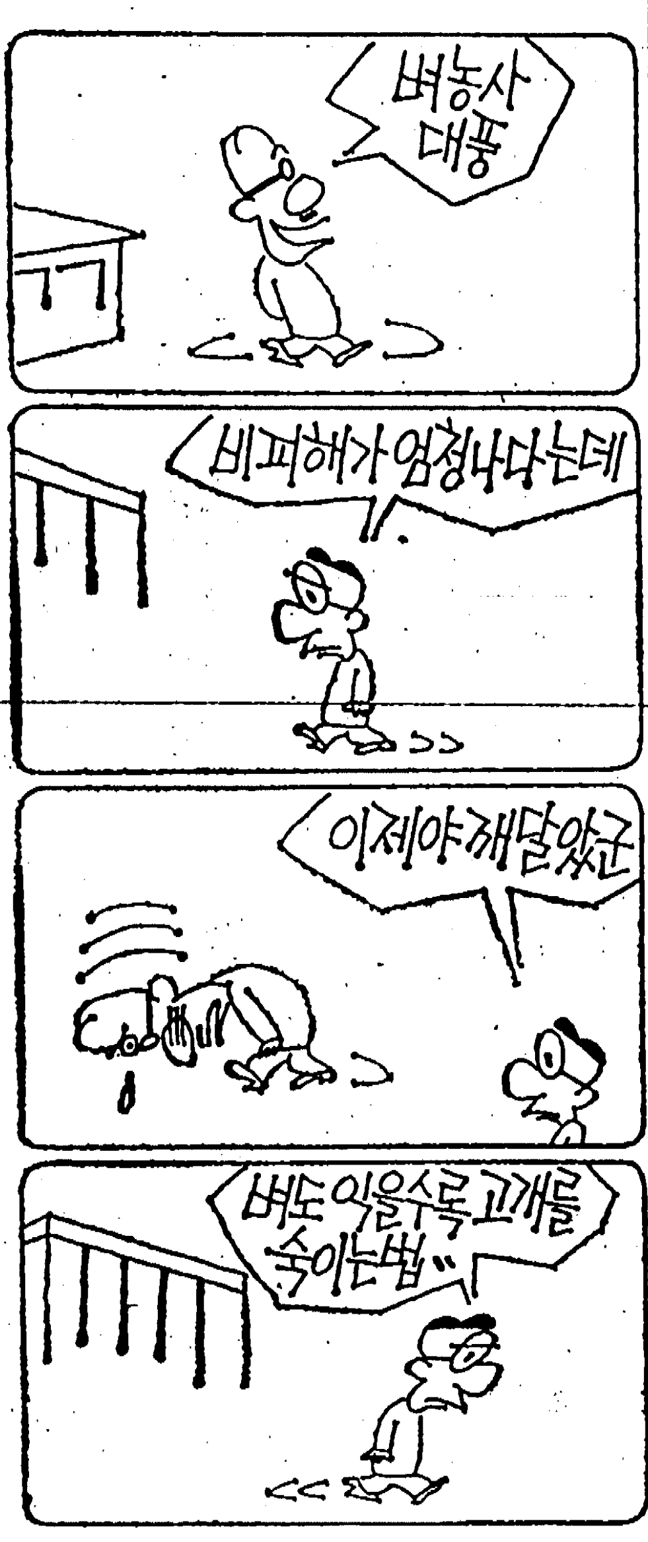
◇西海中部=남동풍~남서풍10m 한차례비 파고1~2m
◇西海南部=북동풍~남동풍10m 구름많음 파고1~2m
◇南海西部=북동풍~남동풍10m 구름많음 파고1~2m
◇南海東部=북동풍~남동풍10m 구름많음 파고2m안팎
◇東海南部=북동풍~남동풍10m 구름많음 파고1m안팎
◇東海中部=남동풍~남서풍12m 차차흐림 파고2m안팎
△항로=특기사항=먼항로 파고2~3m



지역별 기온	
서울	9~20
水原	9~20
白翎島	11~20
大田	10~21
淸州	9~21
春川	13~18
江陵	14~18
光州	11~21
全州	11~20
濟州	13~23
釜山	13~23
大邱	10~23
鬱陵島	14~18
平壤	6~18
中江鎭	5~16
咸興	8~19

△일출 06·39 △일몰 17·56 △월출 07·36
※仁川 밀물05·41 18·03 썰물14·46 —
※群山 밀물04·04 16·25 썰물10·48 23·17

나대로 선생 (1508) 이홍우



강인한 체력, 人蔘의 힘!
진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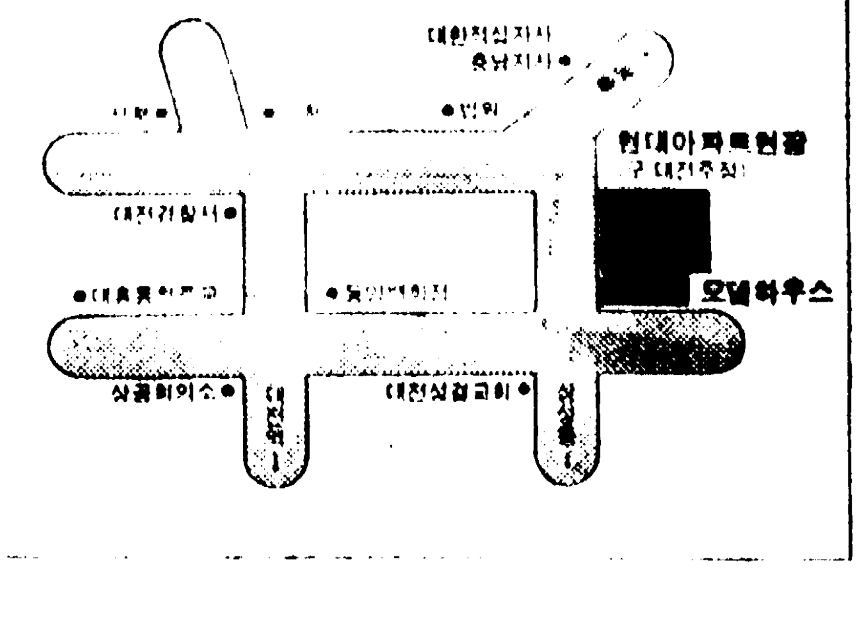
대전선화동 現代아파트

현대그룹의 한국도시개발이 대전의 일급주택지역인 선화동에 現代아파트 단지를 조성합니다.

33평형 36세대
48평형 60세대
49평형 96세대

[illegible]

■위치도



그동안 서울 압구정동, 인천 부평, 안양 관양동, 수원 우만동, 부산 거제동 등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여 입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한국도시개발.
現代의 공신력이 쌓은 높은 투자가치와 실용적인 내부설계, 완벽한 편의시설들은 現代아파트의 진가를 확인시켜 드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대전 현장사무실 : 254-5391
모델하우스 : 254-5390
■서울 본사 분양과 : (代)544-8541(交)224,225
(直)544-8723

韓國都市開発株式会社
서울特別시 강남구 신사동 603-2